

토 론 문

남 천 우 관장

(성남시 상대원1동 복지회관)

저는 상대원1동복지회관의 관장과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5기 보장계획이 수립되고 민선8기 정부가 운영되면서 사회복지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성남시는 원도심 재개발과 위례 등 신도시 개발로 급속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욕구는 매우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욕구에 대한 빠른 대응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대원1동복지회관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동단위로 지역에 밀착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돕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남시의 환경과 현황, 과제와 전망에 동의하며 제 경험을 보태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1. 통합과 연결, 유연한 대처

성남시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서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각각의 시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수요와 욕구도 생겨납니다. 그에 따라 시설 건립에 대한 요구도 있고, 이미 건립 준비 중인 시설도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확충, 1인가구지원센터, 공공요양원 등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건립해서 새롭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의 통합, 연결, 재배치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출산과 원도심 재개발로 인해 아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재개발이 마무리되어 신규 아파트

에 입주한 주민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해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미스 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빠르게, 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동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어린이집의 경우 일부 시설을 옮겨 운영한 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감하여, 경로식당 이용자가 줄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결식우려가 증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후원금과 동보장협의체를 통해 몇몇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 저소득 1인가구가 무료 경로식당을 통해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시설건립에 앞서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기존의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연결하는 등의 유연한 대처가 먼저 선행 되어야겠습니다.

2.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정보플랫폼 강화

최근에 보다 깊이 있게 느낀 점 중 하나는 복지에 대한 체감입니다. 어렵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 그만그만하게 삶에 대한 편안함이 생기고, 버티는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신청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정보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남시는 성남복지이음정보센터 사업을 통해 복지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성남시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보를 못 찾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성남복지이음을 보다 내실화하고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정보플랫폼이 다양한 복지서비스간에 연결을 강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람중심관계망’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성남시는 지역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市협의체, 區협의체, 洞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이 지역사회의 주민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洞보장협의체는 洞 중심으로 지역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결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우수사례로 이야기 되는 판교동은 2019년~2020년에 걸쳐서 마을복지계획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력 강화와 동협의체 활성화의 역할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교동의 주민활동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잘한 점을 ‘섬세한 소통’으로 꼽았습니다. 다양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SNS,

발표회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활동을 알리고 참여자 간 소통을 하였습니다. 이런 소통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냈으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주민들간에 상호 신뢰가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동보장협의체 활동으로 위기가구가 2,185건 발굴되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 추천, 통장추천, 주민추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사각지대가 발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협의체는 CMS모금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구 발굴과 CMS모금의 성과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맞춤형 복지는 어떤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서로 도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습니다. 이준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중심 관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중심관계망은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주민들의 참여는 판교동 예에서 보듯이 ‘섬세한 소통’으로 만들어집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洞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나고 논의하고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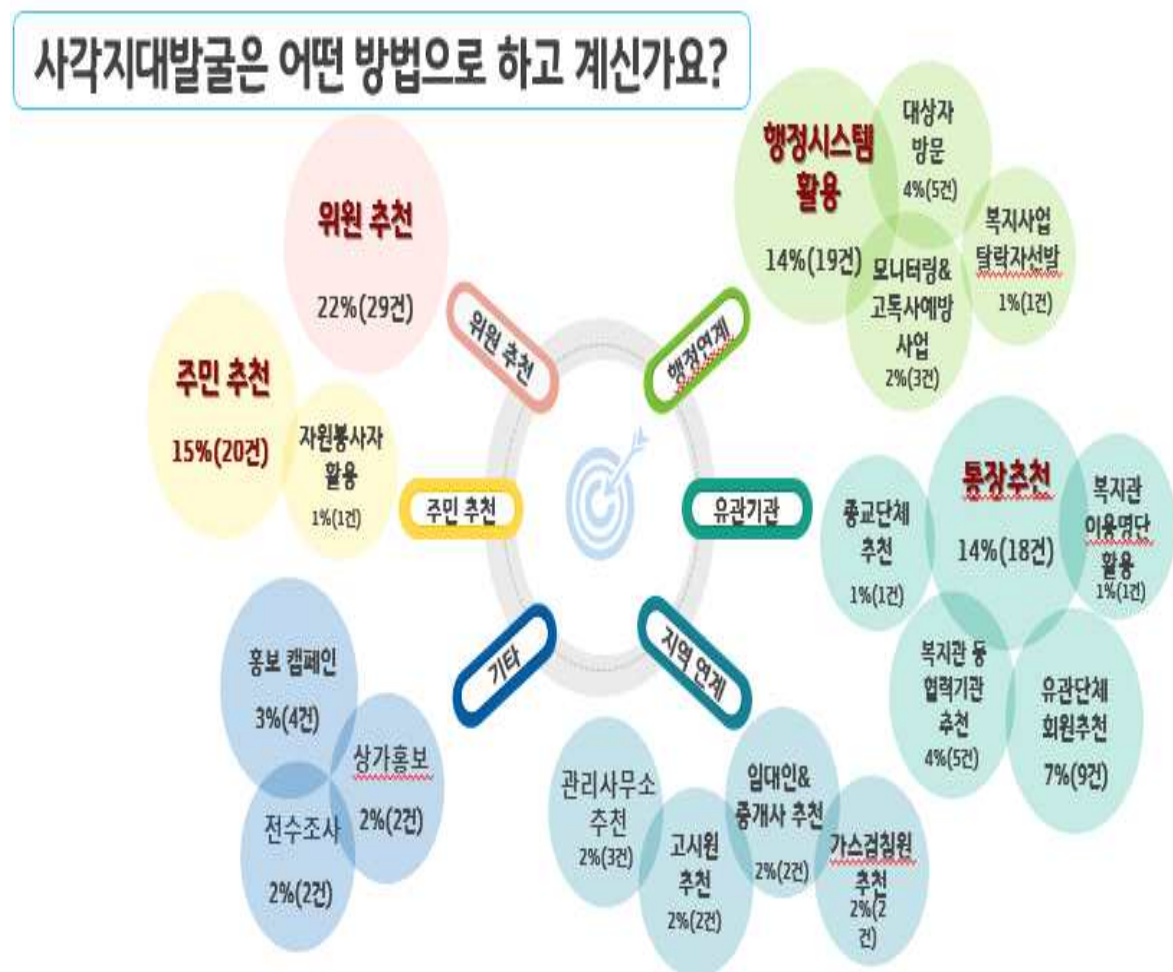
주민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상설 교류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5기 보장계획에 사회보장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민관협력네트워크와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네트워크 활성화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민관 협력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할 때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

※ 2021년 12월말 기준. 자료출처: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동협의체 위기가구 발굴 건수 : 2,185건



2. 동협의체 CMS 모금액 : 291,780,390원

※ 모금 누적액 : 1,190,945,670원(2016 ~ 2021)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활성화

어떤 자원을 활용하시고 있나요?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3. 동협의체 기본사업 및 특화사업 : 50개동 150여개 사업 추진

4. 동협의체 활동 주요 성과

- 위기가구 및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성
- 독거노인, 위기가정,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